

# 시지각적 분석을 통해 본 한국 전통상류주택 내부공간 구성요소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강릉선교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Interior Space Elements in Through the Analysis  
of Visual Perception Korea Traditional Upper Class Residence

- Focused on Kangneung Sunkyojang -

권기화\* / Kwon, Ki-Hwa

최상현\*\* / Choi, Sang-Hun

## Abstract

The human scale of the interior space of a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is normally user-friendly. And this aspect is reinterpreted and implemented in the modern structure. While our conscious awareness has become greatly westernized through the east-west exchanges, the interior of the traditional Korean residence has always reflected the people and their daily lives of the time. In this study, an attempt has been made to identif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inner space ele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visual perception inside a Korean traditional upper class residence, kangreung Sunkyojang, designated as the 5th Cultural Information Material with regards to the inherent philosophy and human scale that influenced the emotions of the Korean people. The different parts of the interior space of Anchaehae, and the Symmetrical of Formal, Balance of the walls give a sense of calmness, and the ornaments are used to give gaiety. The ceiling of Yeolwhadang hall give an energetic feeling and pillare are used to enhance spaciousness. In Whalejeong, by making use of similar and continuous lines, the light and darkness was controlled and the link with nature has been emphasized. Different decorations used reflect scholarly spirit.

키워드 : 시지각, 전통상류주택, 내부공간 구성요소, 의장적특성

Keywords : Visual Perception, Tradition Upper Class Residence, Interior Space Elements, Aesthetic Characteristics.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한국 전통상류주택은 인간적 척도(Human Scale)개념으로 볼 때 내부공간 규모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의식주를 위한 생활공간으로 대가족의 구성원이 질서와 규범으로 주거공간에 물리적으로 그 시대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류주택의 전통문화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전통 상류주택은 의장적 구성요소가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내부공간이 인간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생활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한 경험을 담고 삶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 전통상류 주택은 현대 건축에서 재해석되어 시대적 상황에 많은 적용이 되어 왔으며, 전통 문화가치로 의미를 부여해 왔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구조는 동, 서양의 교류

를 통해 생활행위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현대 실내건축의 관점에서 한국 전통상류주택의 내부공간의 의장적 구성요소를 시지각적 분석을 통해 의장적 특성을 추출하고, 현대 실내건축에 해석된 표현과 전통 문화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범위는 조선후기 상류주택으로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5호로 강릉선교장을 선정하여 안채, 사랑채, 활래정을 범위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조선후기의 상류주택의 형성 배경은 인문, 자연환경의 문헌을 통하여 이론적 고찰하고 그 시대 관점의 생활행위를 통한 강릉선교장의 형성배경을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고 공간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둘째 강릉선교장의 내부공간 구성요소를 방, 마루로 정하고 내부공간 의장적 요소를 바닥, 벽, 천정, 기둥, 개구부, 창문을 통하여, 의장적 특성을 시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공간, 선, 모양, 재질, 빛, 색채, 문양을 통한 구성 원리를 찾고 규모, 비례, 균형, 리듬, 강조, 조화를 통

\* 정회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실내건축학과 석사수료

\*\* 이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실내건축학과 교수

하여 분석한다. 셋째 강릉 선교장의 내부공간 구성요소를 안채, 사랑채, 활래정의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강릉선교장의 의장적 특성을 정리하고 연구의 특성과 한계점을 정리한다.

강릉선교장에 대한 연구방법은 사례조사 1차 (2005.3), 2차 (2005.7)에 걸쳐서 의장적 요소를 선택하고 사진 촬영하여 강릉선교장의 시각적인 미를 바탕으로 의장적 특성을 추출한다. 강릉선교장 내부공간의 안채, 사랑채, 활래정의 구성요소인 방, 마루를 중심으로 하고 내부공간의 의장적 요소를 바닥, 벽, 천정을 통하여 시각적 형태를 촬영하여 내부공간에 시각적인 미가 지각되는 의장적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은 선교장의 내부공간 구성요소를 단위로 안채, 사랑채의 안방, 안대청, 건너방, 사랑방, 사랑대청, 누마루, 활래정 방, 누마루의 의장적 구성요소를 바닥, 벽(창, 개구부포함), 천정, 장식, 가구로 정하여 미적 요소가 지각되는 전통 상류주택으로의 변모를 갖춘 강릉선교장의 의장적 특성을 분석한다.

## 2. 전통 상류주택 내부공간의 이론적 고찰

건축의 내부공간은 건물 매스나 외부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건물 실내에 있어서 인간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영역적 공간 의식이 표출되는 곳이다.<sup>1)</sup> 따라서 상류주택의 내부공간은 생활을 통한 체단위로 구성되고 이 단위는 인문적, 사회적환경의 영향을 받고 가족 구성원의 생활행위를 위한 물리적 공간이다.

### 2.1. 상류주택의 개념

상류주택은 전통사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살던 주택을 말하고, 대가족제도에 의하여 한 주택 내에 3대에서 4대에 이르는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sup>2)</sup>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를 통한 지도층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선비생활을 위한 중심지로, 또는 사교에 필요한 장소로 사용되며 그 가족 구성원의 주택을 말한다. 그들의 생활은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생활행위를 통한 건축된 한국 전통주택을 말한다.

### 2.2. 상류주택의 형성배경

#### (1) 풍수지리 및 도교사상

풍수지리설은 삼국시대 말기 중국으로 부터 들어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극히 번성하고 조선시대 들어와 사대부들은 집을 지을때 건축배치, 평면의 위치에서 길흉을 생각하고 좌향을 중

시하였다. 풍수설은 대지 속에 만물을 생성하는 생명력, 또는 생활력이 있다는데서 전래하는 것이다. 또한 음양오행설중 음양설은 양에서 비롯된다고 하며 오행설과 함께 동양의 철학, 사상, 논리는 물론 천문, 의학, 지리등 생활 전반까지 큰 영향을 미쳐왔다. 원래 양이란 태양을 근거로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그 법칙에 순응하여 행동하려 고대사상의 하나이다.<sup>3)</sup> 따라서 현대에서 길흉을 막고 주거의 기능과 자연적 현상에 맞추어 환경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 (2) 인간적 척도 (Human Scale)

한국건축에서는 기둥의 높이, 들보의 크기, 천정의 높이 등 모든 척도가 인간의 키와 비례하고 특히 전통 상류주택은 간(間)을 실내공간 단위로 하고 생활행위를 통한 공간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체단위를 구성을 한다. 정자 그리고 향교, 서원등 인간적 척도를 사용하여 단아함을 느낄 수 있다. 격언 중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라고 할 정도로 인간은 질감, 색, 재료를 느끼기 이전 높이와 폭을 먼저 인식한다.

#### (3) 유교사상

유교는 조선시대 정치, 경제, 문화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원래 유교는 중국 공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서삼경을 경전으로 하여 정치, 도덕을 실천하는 유학을 바탕으로 하는 이념이다. 유학은 천명(天命)을 근본으로 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을 강조 하므로, 조선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닦고, 인간을 다스리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으로써 종교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sup>4)</sup> 조선시대 사대부는 유교를 토대로 조상숭배를 위한 사당,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위계성, 가족의 일을 밖으로 노출하지 않고, 대가족 중심으로 하고 유교는 조선후기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되어 기풍으로 정착, 하면서 양반계층에서는 상류주택에 공간을 남녀유별에 따른 주거공간을 안채, 사랑채로 구분하고 솥대문과 안채대문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17세기말 제례와 접객위주의 사대부 주택으로 새로운 변모를 가지며 선비정신을 반영하였다.

#### (4) 불교사상

불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당시 당나라에서 인도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신라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화엄사상은 화엄경을 근본으로 우주만물이 홀로 있는 것이 없으며 모든 사물은 하나로 융합되게 한다는 연기설, 삼라만상 오직 마음에 의해 변화되며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유식론<sup>5)</sup> 따라서 고려시대 지방 사찰이 자연 속에서의 생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자연을 건축공간에 자연주의 미학특징을 가지며, 고려시대 부터 내려오던 사찰에서의 제사는 관습에

1)최상현, 조선 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p.12

2)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p.377

3)손두호, 한국 전통주거에서의 풍수사상과 그 건축적 해석에 관한 연구, 1980, p.15

4)박영순 외, 우리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9, p.17

5)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p.80

의해 쉽게 고쳐지지 않았지만 17세기 이후 불교건축은 희생하며 좁은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실내공간의 확장과 창문을 크게 내어 실내를 환하게 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 하였고 18세기가 되면서 실내공간의 장식이 화려하였다. 17~18세기로 넘어가면서 지방의 양반들은 사대부로서의 엄격한 품격과 적체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와 즐거움을 적절히 조화 시켜 상류주택 조형예술을 만들었다.

### (5) 신분제도와 가사규제

조선시대 주택은 양반, 중인, 이교, 양인, 천인으로 신분이 나누어져 세종 31년(1449)에 지정된 가사규제 내용을 보면 대군은 주택전체규모의 60간/누10간, 왕자. 군. 옹주는 50간/누8간, 종친 및 문무관 2품이상 40간/누5간, 3품이하 30간/누5간, 서인 10간으로 가사제한이 정해지고 법전인 경국대전에 명시하고 공포를 사용하는 화공과 다듬은 돌인 숙석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 주택 규모나 외관을 꾸미는데 영향을 주었다. 민간에서는 99간 집을 지을 수 있었고 주택을 장식하는데 단청은 세종11년(1429) 금지되었으나 문종연년(1451)에 관부와 사찰에는 주칠을 허용했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은 옹주, 지방에 거주하는 부호들의 경우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100간을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러한 규제완하는 없었다. 순조 28년(1828)에 창덕궁 내 연경당을 세자의 창으로 사대부의 생활을 알기 위해 사대부 주택을 모방하여 대지가 1500평에 99간의 집을 지었다.

## 2.3. 상류주택 내부공간 구성요소

상류주택의 내부공간은 채를 단위로, 건물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외부공간적 내부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부공간은 조선시대 주거의 특성으로 인하여 마당을 현대적 개념의 정원과 같은 관상적 용도의 공간이 아닌 실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의 연장으로서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그 공간적 개념을 내부 공간적 외부공간을 내부공간의 연속으로 본다. 둘째 안. 밖의 개념으로 공간구조의 폐쇄성과 연관된 개념으로 상대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상.하의 개념으로 유교적 발상이라 보이는 것으로 주인과 하인, 남과여, 나이 계층 구별의 사소가 내부공간에 반영되고 배치형식에도 동쪽 사랑채, 서쪽 안채로 배치함으로 의미를 두었다. 넷째 이용도성의 개념은 상류주택 내부공간을 이루는 실의 가능성으로 구별되는 변형된 공간형태를 가지지 않고 이용도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sup>6)</sup> 따라서 전통 상류주택 공간은 채 공간을 단위로 담을 형성하여 담을 단위로 안과 밖을 구분한다. 상류주택에서는 채 단위로 내부구성되어 있다. 채 단위는 담장으로 구분하여 각종 마당을 형성하고 마당은 내부공간의 연장된 공간으로도 사용된다. 채 단위는 간

(間)을 단위로 방과 마루의 구성요소를 이룬다. 안에서 다시 안과 밖을 구분하고 내부공간 구성요소를 만든다. 안채는 안방, 안대청, 건너방, 안마당, 부엌을 단위로 생활기능, 기후, 가족관계, 나이, 위치, 방위에 대하여 특성을 지니며 안방은 집안의 안주인이 기거하고 밤이면 침실이 된다. 이 공간은 주택의 안쪽에 자리 잡고 직계존속 이외의 남자는 출입이 금지된다. 건너방은 머느리가 기거한다. 사랑채는 사랑방, 사랑대청, 침방, 누마루, 사랑마당을 두고 주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거처로 사용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논하고 문객과의 교류, 접대를 하는 곳이다. 사랑대청은 집안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침방은 태종조에 부부별침을 명한 이후 상류주택에 구성되었다. 행랑채는 안대문과 솥을대문을 두고 마굿간, 방, 부엌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별당채, 고방채, 그리고 사당이 있다. 사당은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가묘법에 의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산정사랑(山亭사랑)은 주인만 거처하는 곳으로 서(書), 화(講), 금(琴), 기(棋) 사우(四友)라 하여 각종 서화와 가야금. 바둑을 갖추어 놓은 곳이다.

## 3. 전통 상류주택 내부공간의 의장적 구성요소

### 3.1. 상류주택의 의장적 구성요소 개념 및 정의

한국 전통주거건축은 목조 가구식 건축이기 때문에 하나의 틀(Frame)은 4개의 기둥에 의하여 구분되면 이것을 간(間)이라 부른다. 의장적 구성요소는 구조에서 수직적 공간분할 의장요소인 벽체와 창호, 그리고 공간 한정 의장요소인 바닥, 피복요소인 지붕, 천정에 의하여 입체적 개념으로서의 격자를 구성하게 된다. 이 입체적인 그리드는 목가구 입방체 틀과 위상, 비록, 벽체의 개폐 방식에 의하여 형태가 결정되며 그 단위에 담겨 있는 내용, 즉 생활로서의 기능에 의하여 그 성격이 결정된다. 상류주택은 크게 안채,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외 기타 부속채로 나누고 채 공간은 방, 대청, 부엌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상류주택의 의장이란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을 말한다. 의장 구성요소가 인각적 척도를 지닐 때 인간이 안락하게 생활 할 수 있고 기후, 지형, 사회제도, 사상, 우주론, 가족관계, 생활행위를 담고 의장된 형태는 공간, 비례, 색채, 선, 재질, 패턴, 빛을 통하여 심미적, 상징적 의미를 준다. 또한 의장적 구성요소를 통하여 상징적 의장의 형식으로 상류주택에 표현되는 대상이란 그 시대의 사상, 유교사상, 남녀구분, 정신적 개념군이므로 어떤 질서를 갖춘 상징 체계에 입각한 상징화 작업이 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의 반영을 의미한다. 상류주택의 상징의 주된 역할은 의미의 수용과 의미의 전달인 것이다. 즉 상징적 의장의 형태와 힘을 빌어 의미가 수용되며 대상은 건축을 경험함으로써 수용된 의미를 전달 받는다. 상징적 의장의 의미 전달에 있어서 우대의 건축경험자에게는 상징적 의장의 표현 의미

6)최상현, 조선 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p.14.

의 배경과 내용을 알기 위하여 필요성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하는 것은 상류주택의 심적 의미가 아니고, 과거의 Pattern이 가졌던 특수한 형식이라는 것을 지각하였을 때 활용 가치를 가진 정신 문화적 언어가 의장적 요소를 구성한다. 따라서 상류주택의 의장적 구성요소는 1차적 고정적 구성요소, 2차적 유동적 구성요소, 3차적 심미적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다.

<표 1> 상류주택의 내부공간의 의장적 구성요소

1차적 요소	2차적 요소	3차적 요소
고정적	유동적	심미적(아름다움)
구조적	응용장식적	장식적
바닥 벽체와 인방 천정 창호 기둥&보 공포 개구부 배치 계단 및 경사로	가구 액세서리 직물류 칸막이	공간 비례 색채 선 재질 편안 빛

### 3.2. 상류주택 내부공간의 의장적 구성요소.

내부구성의 의장적 구성요소는 안체에 바닥은 방은 온돌, 대청은 마루로 구성되고 창호는 살짜임새에 문양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띠 창살문과 골판문을 사용하고 미닫이이나 장자로 사용되는 창호, 문의 살짜임새는 用, 亞, 卍자의 살과 솟대살, 귀갑문등으로 다양한 살짜임이 있다. 안방에 보료, 사방침, 장침, 안석, 방석, 화로, 문갑, 경대, 사방탁자, 병풍등이 있고 빗집고비, 서간고비, 병풍, 방장이 있고 옷방은 안방과 인접한 방으로 장, 반닫이위에 실함인 반지고리가 있다. 대청은 안방과 건너방의 매개공간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며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는 중심이 되기도 한다. 대청은 바닥이 우물마루 벽은 회반죽 마감이나 벽지로 처리하고 천정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정이다. 대청과 안방 사이는 여름에는 들어 열개로 분합문을 집어 들쇠로 매단다. 대청의 모퉁이에 사방탁자를 놓고 뒤쥐가 놓인다. 건너방은 일반적으로 며느리가 사용하고 옷목에 장과 농을 놓고 색실 함이나 반지고리를 둔다. 사랑채의 사랑방은 바닥은 장판지, 벽을 벽지마감, 천정은 천정지마감을 하고 조우 사방침과 장침을 놓고 안석을 다락문 아랫벽에 기대어 놓았다. 문갑위 필가나 필등을 놓고 다락문에 서화를 붙이고 족자가 벽에 걸리며 서간용 고비를 걸어 둔다. 사랑대청과 누마루에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벽은 거의가 창호로 구성되고 천정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정이다. 대청에 양쪽에 사방탁자를 두고 사랑방과 침방에 가구를 둔다. 여름에는 창호를 들췌에 매달고 살평상과 죽부인을 둔다. 침방은 사랑방 옆에 두고 요강, 타구등도 갖추어지고 남자용 의걸이를 걸어둔다. 소고는 서책을 보관하기도 하고 책재, 서안을 두고 독서를 하기도 한다. 사당은 가묘법에 의한 조상의 위패를 놓고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별당, 산정사랑은 주인만 거처하는 곳으로 사랑방에 준

한다. 행랑채는 각 공간의 하인들이 기거하고 청지기 방을 비롯하여 솥을대문과 안대문이 담장을 이룬다.

### 3.3. 의장적 구성요소 및 시지각적 분석

상류주택에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과 내부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은 가장 기본단위를 바탕으로 건축의 다른 부분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내부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요소들과 또 다른 큰 공간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 내부공간 구성을 위해서는 의장적 구성요소 크게 나누어 바닥, 벽, 천정, 기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의장요소들은 시각의 힘의 적용 범위 내에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시지각이란 대상의 상관성을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지각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시각은 외부환경의 정보를 형성화시켜 대뇌에 기억 시켜주는 유일한 기관이며. 이러한 시지각의 역량은 인간이 시각적 세계를 구성할 때 절대적인 것으로, 지식의 2/3가 시지각을 통해 획득된다고 J. Mc. Conell은 말하고 있다.<sup>7)</sup> 이는 전통 상류주택에서 시지각 현상을 객관화 하는 게스탈트 이론은 의장적 특성을 발견하는데 가장 정확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게스탈트(Gestalt)라는 용어는 독일어로 Shape, Form 뜻과 같다. Gestalt 심리학은 경험적이고 현상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지니며, 사물에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뿐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성질은 상대적 관계에 의해 변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게스탈트 법칙은 첫째 Pragnanz법칙 : 간격성의 법칙, 단순성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게스탈트 이론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특성은 대청성, 규칙성, 연속성등을 포함한다. 둘째 그루핑의 법칙 : 그루핑(Grouping)이란 요소나 부분을 전체 속에 묶는 것을 말하는데, 그루핑도 간격성이라는 게스탈트 법칙에 의하여 유도한다. 한 패턴(Pattern)의 부분을 시각의 질에서 서로 닮은 분류에 속하도록 작용하는 근접성과 유사성의 성격을 가진다. 셋째 Figure- Ground 법칙 : 그림과 바탕의 사고방식은 존재의 본질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것이다. 모든 시각적인 대상과 그 범위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도형과 바탕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시야의 성질이 서로 다른 영역이 있을 때 윤곽이 분석됨으로서 지각된다. 이런 사고는 음양설과도 관계가 있다. 넷째 폐쇄의 법칙은 폐쇄된 윤곽선을 가진 형태는 형태감을 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폐쇄의 암시만으로 폐쇄의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다섯째 균제의 법칙은 시각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비대칭은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보다 강하게 형태로서 지각된다.<sup>8)</sup> Gestalt 심리학은 어떻게 마음의 감각을 지각으로 조직하는가에 관심을 가졌고, 감각적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조직화 하여 Gestalt를 구성한다고

7)Wolfgang Kohler, Gestalt Psychology(New York: Liveright), 1928  
8)김영희, 전통주거공간의 시지각 현상에 관한 연구 1988, p.8

보았다. 이러한 인지의 전체성은 레빈(Lewin)에 이르러 장 혹은 생활공간 개념으로 발전한다.

## 4. 강릉선교장의 내부공간 의장적 특성 분석

### 4.1. 강릉선교장의 개요

강릉선교장은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31에 위치하고 조선 후기 양반민가로 효령대군 11대 손인 선교장 1대 이내번이 정착하여 3대 오은거사 이후에 의해 열화당, 활래정등을 갖추면서 상류주택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1936년 일제시대 동별당을 건립하고 6.25동란때 소멸되었다가 1967년 4월19일 민가로서 중요민속자료 5호로 지정되고 가옥으로 분류되었다. 강릉선교장 건물은 우리나라 상류가정 주택의 한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건축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sup>9)</sup> 조선 순조때 개기하여 현재까지 중요민속자료 5-1 열화당, 5-2 안채, 5-3동별당, 활래정이 5-4로 지정되어 있고 2005년 7월 서별당이 복원되어 있고, 현재 후손이 외별당에 기거하고 있다.

### 4.2. 내부공간 구성 및 구성요소

강릉선교장의 내부공간은 구릉지에 채 단위로 방과 마루 기타 부속실로 구성되어 있다. 강릉선교장은 200년의 시대를 반영하고 대가족의 의식주를 위한 삶을 담은 공간으로서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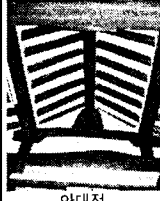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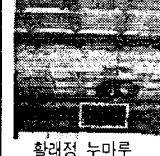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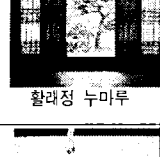

<표 2> 강릉선교장의 내부공간 구성요소

구분	건립연대	구성요소	명칭
안채	1756경 1853중수	안방,안대청,건너방,반침,골방,부엌,	
사랑채	1815	사랑방,사랑대청,침방,건너방,누마루	열화당
별당	1920	사랑방,방	작은사랑채
	1830	방,대청,마루,방	동별당
고방	1816	서고,방,대청,방	서별당
행랑채		침모방,마루,방,찬모방,	연지당
정자	1816	부엌,방,광,숯대문,안대문	
	1906중수 1924중수	방,누마루	활래정
사당		-	방해정
광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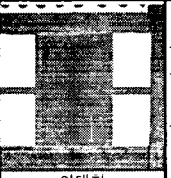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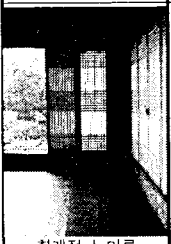

### 4.3. 내부공간 구성요소의 의장적 특성

강릉선교장의 전체적이 의장적 특성은 안채에서는 폐쇄성, 정적, 내부공간의 아(亞)자 문양의 문을 통하여 화려한 특성을 지니고 사랑채는 천정을 통하여 균형의 중심축에 관하여 구성요소들이 서로 다른 상태로 정렬하여 비대칭적 균형의 구성은 동적, 활동적, 다양한 긴장감을 주는 성격으로 규정 할 수 있다. 또한 수직의 기둥을 통한 공간감이 나타나며 활래정은 문을 선의 Pattern은 형의 반복이나 형의 결합, 그리고 구성에서 반복되는 유사성, 연속성을 이용하고 빛의 조절을 통해 내부공간의 음영 효과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가지고 있다.

<표 3> 강릉선교장 의장적 특성

의장	특성
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들보를 중심으로 동자기둥은 상승의 느낌을 준다.</li> <li>-서까래의 유사한 반복보다는 대들보가 강한 느낌을 준다.</li> <li>-회벽보다는 서까래의 면이 폐쇄성으로 느껴지기 때문 강하게 보인다.</li> <li>-서까래의 대청은 정적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물천장은 황금비율로 연속적 직사각형으로 폐쇄성을 가진다</li> <li>-통틀과 장틀 소란대는 우물반자의 입체감을 가지게 하며 자연 소재의 목재와 함께 연속성을 가지며 조화를 이룬다.</li> <li>-전체적으로 황금비의 Partten을 이룬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등천정의 회벽보다 대들보에 종도리에 강조되고 의 자연목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 부드러움과 함께 쇠림의 장식은 강현함을 준다.</li> <li>-회벽의 바탕은 서까래의 끝을 묻어 넓게 보이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물천정을 대들보를 중심으로 대청으로 구성되어 안정된 느낌을 준다</li> <li>-1:1의 소란대의 비율로 정적인 느낌을 준다.</li> </ul>
벽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량의 지붕틀은 수평적 보의 연속과 동자기둥이 상승의 느낌을 준다.</li> <li>-건너방으로 들어가는 문양쪽의 대청되는 벽은 정적인 느낌을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면이 1:1의 비율로 정적이다.</li> <li>-민방과 중방사이 회벽은 채워지지 않는 공간으로 멀리 보인다.</li> <li>-벽장 문과 민방과 중방 사이의 직사각형의 유사성은 안정감을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인방을 이용해 1:1, 황금비 모듈을 이용하고 면의 조화를 이룬다.</li> <li>-벽장 문을 아래로 두어 무게중심이 안정된다.</li> <li>-중방과 상방 사이 회벽은 멀리 보이는 느낌을 준다.</li> <li>-크고 작은 비례를 통한 사각형의 회벽은 상승의 방향성을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벽을 이루는 띠살 6분합문은 면을 이용하여 연속성을 가지다.</li> <li>-띠살은 선의 반복의 효과를 이용하여 빛과의 조화로 음영의 효과를 주었다.</li> <li>-6분합문의 전체 비례는 황금비를 이룬다.</li> <li>-돌쇠를 이용하여 문을 들어 올리고 자연과의 소통을 이룬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방 창문의 개폐에 따라 이루어 지는 연속되는 면을 통하여 중첩성과 공간의 깊이를 느끼다.</li> <li>-머름대를 통하여 전체 벽면에 안정된 느낌을 준다.</li> <li>-머름대의 창방은 폐쇄성을 가지고 시선을 모우고 Pattern을 이루어 안정감을 준다</li> <li>-아(亞)자우늬의 미닫이 문과 창은 방과 방 사이에 두고 생동감을 준다</li> </ul>

9)이기서, 강릉선교장, 열화당, 1996, p67

의장	특성
벽체	 <p>-1:1의 비를 통해 정적인 느낌을 준다. -바라지 창문 양쪽에 회벽의 대칭은 정적이고 묘을 얻을 때 지나는 면은 명암의 균형을 준다 -머름대의 직사각형 면을 통하여 폐쇄성을 가지며 머름 대를 강하게 보이게 한다.</p> <p>안대칭</p>
	 <p>-사분합문이 대등보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어 균형과 안정된 느낌을 준다 -띠살문과 용자문의 선과 음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들새를 이용하여 개폐 시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다.</p> <p>사랑대칭</p>
	 <p>-침방에서 바라보는 사랑채는 명암의 대비를 통하여 낮과 밤의 반전이 나타남</p> <p>사랑채 침방</p>
바닥	 <p>-마루의 면의 연속성과 통귀틀은 면의 연속성과 폐쇄된 윤곽선을 만들어 안정된 바탕의 느낌을 준다. -통귀틀과 장귀틀의 색과 마루널 침판은 목재 그대로의 자연 색상의 조화를 이룬다</p> <p>안대칭</p>
	 <p>-침판은 폐쇄된 윤곽의 형태로 반복하여 연속성을 통하여 강한 느낌을 준다 -바닥과 어울어진 난간은 안전성을 가지며 면의 부드러움을 준다</p> <p>사랑채 누마루</p>
	 <p>-1:1의 침판과 통귀틀 장귀틀의 선은 강한 폐쇄성을 주어 바닥의 정적인 느낌을 준다 -띠살 창문의 선의 연속성과 방향성을 통하여 음영의 조화를 가진 빛이 바닥에 비추어 정적인 느낌의 마루에 생동감을 주고 색상의 아름다움을 더한다</p> <p>활래정 누마루</p>
기둥	 <p>-사랑채 누마루 사각기둥은 수직 상승 느낌을 주고 공간적 변화를 준다. -반면 기둥은 깊이를 강하게 느끼며 안정감을 준다 -목재의 나이테의 무늬는 기둥 전체의 문양을 주어 장식한다.</p> <p>사랑채 누마루</p>

## 5. 결론

한국 전통상류주택 의장적 구성요소를 통하여 강릉선교장의 내부 공간의 분석을 통한 의장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의장적 특성은 안채에서 정적이고 내부공간은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다. 안방은 바닥, 벽, 천정의 1:1의 비율을 정적인 느낌에 상방, 중방, 밑방을 통하여 대칭적인 면 분할과 벽장, 문등을 통하여 면의 유사성과 폐쇄성의 느낌을 주었지만 중간 미단이 문과 창 의 아(亞)자 문양의 문의 통하여 내부공간

의 화려함을 더해 주었고 연등천정의 서까래의 강한 느낌은 회벽보다는 서까래의 강조는 폐쇄성을 주었다. 또한 폐쇄성은 안대칭의 아늑한 공간을 형성한다.

둘째 사랑채 누마루는 천정을 비대칭적으로 배치하여 활동감을 주었고 연등천정에 목재의 자연그대로 이용하고 쇠로된 링을 장식하여 강한 느낌과 우물천정의 안정된 느낌을 동시에 표현하고 기둥을 통한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셋째 활래정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연속을 잘 나타내도록 띠살 창에 선의 연속을 이용하여 빛의 음영과 자연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선비정신이 있는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상류주택 강릉선교장의 내부공간의 의장적 특성을 분석하여 시대를 반영한 문화가치로 활용되고 현대 공간에 전통상류주택의 의장적 특성을 적용할 때 생활행위를 통한 정서적인 편리함이 제공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시대 속에 있지 않고, 박제된 공간 속에서 찾기 어려운 점과 주거의 생활행위를 통한 내부공간의 가구가 없고 보수를 통한 의장된 공간으로 변화를 가져 왔다.

## 참고문헌

1. 손두호, 한국 전통주거에서의 풍수사상과 그 건축적 해석에 관한 연구, 1980.
2. 실내디자인분과위원회, 한국건축과 실내, 한국건축사협회, 1986.
3. 김영희, 전통주거공간의 시지각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8.
4. Phyllis Sloan Allen 외, Beginnings of Interior Environments, Prentice Hall, 2000.
5. 최상현, 한국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2.
6. 이기서, 강릉선교장, 열화당, 1996.
7. 김봉렬, 시대를 담은 그릇, 발연, 1999.
8. 김봉렬, 앞과 삶의 공간, 발연, 1999.
9.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10. 박영순 외, 우리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9.
11.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2000.